

화순군, 취업 준비 청년 맞춤형 구직 활동 지원

18~49세 구직 활동 청년 대상 취업 준비 교육·실비 등 지원

화순군이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나섰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청년에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 실비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구직 활동 청년이면 누구나 취업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면접복장 무료 대여 서비스 △증명사진 촬영 비용 지원 △현직자와 만남의 날 운영 △자기소개서 첨삭 및 모의 면접 1:1 코칭 △취업 단기 특강 △취업 스테디 공간 지원이 있다.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에서는 지난 3월 NCS 필기시험 대비 특강을 시작으로 매달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다양한 분야의 취업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에 직업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 사전 신청만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취업 컨

설팅, 면접지도, 비대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379-3632) 및 청년센터(061-372-300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역 청년 인재의 취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에 적합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세대당 60만원

장성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군은 앞선 2월 23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주소·농업경영체·실거주·중복신청·소득요건 등 자격을 검증했다. 이후 읍면심의위원회 및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장성군은 총 사업비 49억 542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농업인 8254명에게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종이, 모바일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함평군월야면복지기동대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정정오 대장) 대원들이 지난 25일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나섰다.

29일 함평군 월야면에 따르면 이날 봉사는 취약계층 가구 화재 후 방치된 주택의 새 단장을 위해 복지기동대가 도배와 장판 교체 지원에 나서는 등 대상자가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다.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 2월 1일 설맞이 길거리 정화 활동과 거리쓰레기 청소이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웃사랑의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정정오 복지기동대장은 "어려운 이웃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등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순영 월야면장은 "면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청렴 담양' 만들기

담양군, 청렴정책추진단 운영

담양군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2024년 제1차 청렴정책추진단 회의'를 열고 추진단장인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모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하며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2024년 반부패·청렴 종합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병노 담양군수가 일일 청렴강사로 직접 나서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해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올해 군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담양 구현'을 목표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부패 예방 통제시스템 강화, 청렴 문화 확산 및 소통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해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청렴도 향상은 전담 부서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담양을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원들이 지난 25일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장성군·백종원, 외식분야 청년 취·창업 함께 돕는다

일자리 창출 등 업무협약

장성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관계를 외식분야 청년 취·창업까지 확대했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더본코리아,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외식업중앙회 장성지부, 백련동 편백농원이 '청년 외식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선 11일 장성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장성 먹거리를 활용한 육군 상무대 장병 특식 제공 행사를 가졌다.

㈜더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단체급식 준비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식당 경영주는 물론 창업 준비 청년,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학생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장병 특식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청년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유통 활성화를, ㈜더본코리아는 장성 특산물을 할

용한 요리 제안과 청년인력 양성을 맡는다.

지역 외식업체는 청년 식생활 상생 공동체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들은 청년 외식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곽영호 장성부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외식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의 소중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전남농기원, 귀농인 대상 맞춤형 교육생 모집

아열대과수 등 8개 과정

전남도농업기술원은 5월 중 실시할 여성 귀농인 역량 강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 발작물 자동화 농기계 등 총 8개 과정에 2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교육과정에는 귀농·귀촌인 농기계 입문, 타 시도민 귀농·귀촌 준비 기초 등 귀농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고 전남지역의 주요 품목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아열대과수에 대한 교육이 마련돼 있다.

농작업기계 전기 용접 과정은 2~3일 운영하며 전기용접 편철접합 실습과 안전사고 사례, 장비 보관요령 등에 대한 교육으로 자가 정비·수리능력을 높인다.

여성 귀농인 역량강화 과정은 8~10일 운영하며 도내 전입한 5년 미만의 여성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안내와 창업교육 및 성공사례 등을 교육한다.

화훼산업 육성 과정은 9~10일 운영하며 화훼재배 농업인과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관화훼, 식재기술 교육과 함께 우수사례 현장실습 등이 이뤄진다.

귀농·귀촌인 농업기계 입문 과정은 16~17일 운영하며 초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취기, 관리기 등 기초기술 운전조작 현장실습과 작업기 탈부착 현장교육, 농업기계 응급점검·정비 요령 등을 교육한다.

농식품 가공창업 과정은 21~23일 운영하며 가공 트렌드 및 유통 마케팅 전

략, 가공 지원사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집중 교육한다.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과정은 21~23일 운영하며 아열대과수 재배농업인과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아열대과수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교육하며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을 실시한다. 타 시도민 귀농·귀촌 준비 기초 과정은 23~24일 운영하며 귀농·귀촌 멘토 성공이야기, 선도농가 현장교육 및 체험, 신지식인 농가 현장견학 등을 통해 전남으로의 귀농·귀촌을 홍보하는 과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로 문의하면 되며, 교육과정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교육세부일정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진용 기자

하천 내 알박기 캠핑 등 화순군, 불법 행위 단속

화순군이 29일 화순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텐트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천 내 둔치주차장은 침수 우려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로 인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인근 하천에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등 하천 구역 금지 행위가 늘고 있다.

화순군은 현수막 및 차량 내 카라반 게고장 부착, 현장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 건설교통실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하고, 하천환경의 보호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영광찰보리 어울마당

내달 10일부터 지내들 돌탑공원

영광군이 '찰보리! 건강보리! 행복보리!'를 주제로 오는 5월10일~11일까지 지내들 돌탑공원에서 제10회 영광찰보리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어울마당에는 경연 대회, 체험·전시행사, 각종 공연, 플라마켓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보리밭 보물찾기, 찰보리 시 낭송 콘서트, 허수아비 만들기, 스트릿댄스 경연, 한지 보리&보리대 공예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터, 투어기차도 운영한다.

박흥영 영광찰보리어울마당 추진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찰보리 들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